

## 부름 - 나를 따르라 (익숙한 두려움에서 일어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다)

### 누가복음 5장 1-11절

1.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잡기게 되 었더라
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 니
9.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 세베대의 아들로써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 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의 팬이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당사자들에게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비논리적이고, 비상 식적인 것들로 인해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난 해 사순절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권오현 목사님이 도입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으십니까? 또 그 연예인이 좋아서 그 사람이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 해 본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수가 앨범을 내면 레코드 가게에 방문하여 테이프와 CD를 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성인이 되어서는 그 가수가 콘서트를 진행할 때 참석했던 추억 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요즘 콘서트 티켓은 얼마인지 궁금해서 검색해보다가 재미난 사실을 알 게 되었습니다.

콘서트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콘서트입 니다. 이는 가수들이 몇 개의 앨범이 생기고, 팬층이 두터워지면 자신의 곡들로만 공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The Show'라고해서 콘서트의 상위 개념입니다. 이는 아무 가수나 할 수 없 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들려주는 것을 넘어 그 곡에 맞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최상의 영상, 오디오 효과를 사용하여 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 규모가 거대하다보니 그에 맞는 장소 섭외비와 행 사 진행비가 넉넉하지 않으면 시도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The Show라는 명칭으로 콘서트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조용필, 나훈아, 서태지, 신승훈, 이승환 그리고 PSY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Show를 준비하니 표 값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통 콘서트는 10~30만원 전후로 측정이 되는데 Show는 50~10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고, 암포는 돈이 없어서 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려고 해도 매물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런 쇼에 50~100만원을 내고 참석하시겠습니까? 망설여지시죠? 왜 그러냐면 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팬들은 이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가격이든 그 값을 치르고 가수가 준비한 공연에 참석하는 것이 진정한 팬입니다.

**그런데 이런 팬들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팬을 뛰어넘어 그 가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BTS(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ARMY입니다. 방탄소년단에 들어간 방탄이란 단어를 따서 방탄복은 군인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ARMY라고 지었다고 합니다.(참고로 저는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는데 방탄복 입기는커녕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아무튼, 작년 12월 한 언론사가 시장조사업체인 아이프라이스(iPrice)를 통해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에게 쓴 금액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연히 BTS 팬클럽이 1위를 했는데 금액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금액은 굿즈(가수와 연관된 상품) 60만원 + 콘서트 티켓 59만원 + 음반 구입비용 37만원으로 도합156만원을 쓴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 값은 전 세계 평균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 한국 팬들이 평균적으로 소비한 것은 1인당 최소 15개의 앨범을 보유하고 있으며 콘서트 티켓은 최소 5번 구매했다고 합니다.

(<https://theqoo.net/hot/1768180553>) 그런데 댓글의 반응이 더 놀라웠습니다. 저건 진정한 아미가 아니라는 겁니다.(저건 팬이지, BTS의 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부서 아이들을 보면 BTS핸드폰만 구매해도 100만원 이거든요. 거기다가 콘서트 갔다온 이야기, 앨범 산 이야기, 굿즈를 산 이야기를 들으면 대충 저 가격은 훌쩍 뛰어 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교 원고를 쓰고 있는데, 제 마음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곧 기회비용이라면....돈을 쓴다는 것에 물질과 마음과 시간을 쓰는 것인데) 우리 학생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저 오빠들을 향해) 156만원이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따르고 있다면,

나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얼마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있을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준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별반 다르지 않는 제자리입니까?

오늘은 사순절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 '초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초대를 넘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당시 말씀을 전하시던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1.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매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2.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3.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무리가 몰려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곳에 오늘과 같은 강단이나 무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

디오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갈릴리에 가보았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 집니다. 육지와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띄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흘러들어갈 때, 목소리가 그 흐름을 타고 실려가 좀 더 잘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리 많이 모였을 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비롯해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을 많이 모으는 비결을 ‘불치의 병’을 고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자신들의 기대를 안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는 이야기를 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찾아옴’과 ‘부르심’사이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변화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논리를 벗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그렇습니다.

배 위에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에 보면,

2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미 일이 다 끝나 배를 닦고 있었던 그들에게 찾아가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쳤으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아침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5절을 보세요.

5.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전혀 자발적이지도 맘에 내켜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다시 물속에 그물을 내리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계속되는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계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무리를 먹이라고 하십니다.

한 번 우리들의 삶을 드러다 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들 인가요?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 일들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합리성’ 정도가 아니라, 무지하게 손해 보는 일들이 많지 않을까요?

제가 종종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치관이 뒤집혀진 ‘upside-down Kingdom’이라는 말이죠.

주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따름도 세상의 것과 같을 수 없

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의 방식과 순종의 방식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수의 길]에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이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고, 모든 사람들을 나누어 주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들에게 비상식적인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논리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보이는 나라인 듯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혀 새로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단지 예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인’이 됩니다.

자신이 논리가 깨어지는 순간, 자신의 내면에 주님께 자신의 의지를 드릴 마음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 생업을 이어가려는 마음 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늘 동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시는 것이죠. 요즘 T. V.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행입니다. 계속되는 절차를 걸쳐 선발해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경쟁시키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말을 타고 달리던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변화되지 않고 상식에 의지하던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사신을 주셨는데도, 바뀌지 않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우리들에게 비상식적으로 들립니다. 여전히 제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틀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초대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존재 양식을 버리고 바꾸라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 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던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한 걸음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주 작은 걸음으로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출발점은 그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회개 없는 시작은 없습니다.

[예수의 길]에 들어선 우리들의 첫 번째 결심과 행동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 부르심의 의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때,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시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결핍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풍요의 세계와 사고방식으로 옮겨 가게 하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결핍의 사고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풍요를 누릴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결핍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인도합니다. 부족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걱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두려움이죠.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쌓아 두려는 유혹'으로 인도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축적'이 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비상시를 위해 쌓아둔 것이지 정당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궁핍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것이 당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죠. 이러한 악순환을 헨리 나우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핍감에 얽매어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쌓아 둔 것을 빼앗으려는 적이 생긴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 여분을 탐내는 사람도 많아지므로 우리의 두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쌓아 둔 것이 많아질수록 내 것을 지키려는 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릴 수밖에 없다.”**

주님의 부르심은 제자들에게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부족함을 걱정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논리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움켜잡고 있으면 점점 더 많은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베풀면 점점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던지지 않고 고기를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면, 그 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가진 것은 나누기 시작할 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만일 부족하다는 생각에 물고기와 빵을 손에 움켜쥐고 있었다면 풍성한 기적을 결단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듯, 부족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집착할 때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초조해 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반대편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일, 즉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를 떠나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 가족과 직업과 모두를 버리고 주님을 떠나야 하는 일이 우리 삶에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단순한 일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커다란 영적 비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집을 나와 회사로 가는 길 운전대를 잡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침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 주님께 걱정과 근심을 안겨 드렸던 자신을 생각하며 용납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하여 우리가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 영적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프란시스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굴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4년 동안 고뇌하며 걸었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 그 길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늘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누군가가 이루어 놓은 거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지나야 했던 아주 사소한 것들입니다.

“기억하기 바란다. 당신은 오늘 밤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안다. 내일 해야 할 일도 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도 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런 작은 일들에 충실할 때 이로써 먼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럴 때 당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점점 크게 들려오고 목적지도 뚜렷해진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아주 좋은 통찰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멀리뛰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러운 한 걸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첫 걸음은 ‘경청’입니다. 그 다음에 ‘내 것을 등지는 걸음’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늘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이 두려움 때문인지, 사랑 때문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 앞에서 이 선택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제자들을 향해 두 번의 부르심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풍성함을 향해 나아오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풍성한 생명의 약속을 받고 따라온 사람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애초부터 주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 삶은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의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일이 먼저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 분의 나라와 말씀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분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 안에 거하기를 바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점점 흥미진진해 질 것입니다.

‘경청’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제자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 **그 분을 따르는 방식에 대해서. . .**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초점’이 있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를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나’를 버리고 ‘타자’이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자신이 구축해 놓은 ‘자아’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존재양식과 삶의 방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따라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모방’은 상대에 대한 존경과 흠모는 있지만 개인적 친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게으름’ 때문에 따라하지만 내면의 깊이까지 다다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따름에서 내 삶의 깊은 자아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는 것은 그 분의 영광 빛과 마음 안에 살되 또한 나의 영광 빛과 마음으로 산다는 뜻이다. 수동적 모방자가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소명과 부름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발견한다는 뜻이다. . .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이 그분의 고유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진실 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놀라운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따른다는 것은, 우리 삶에서 진실한 우리 삶의 방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신앙의 놀라운 선배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에는 놀라운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마치 ‘모자이크’처럼 각자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다른 빛, 다른 크기, 다른 재료들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하나하나가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보면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이 멋진 그림을 그려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 하나는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엮어 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기 다른 조각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얼굴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유한 부르심의 소리를 자기만이 소리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증언합니다.

“제자도의 형태는 이처럼 다양하다. 어떤 이의 사랑은 열정적이다. 어떤 이의 사랑은 의분이어서 불의를 보면 곧바로 달려간다. 어떤 이의 사랑은 아주 온유하여 어디를 가나 따뜻한 환대로 공동체를 만들어 낸다. 어떤 이의 사랑은 조용하게 숨어 지낸다. . .수많은 형태의 사랑들이 서로의 지지대가 되어 준다.”

오늘 우리를 부르심에 대하여 꼭 기억했으면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은 마치 ‘거울의 반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반사하는데, 그 위치에 따라 반사되는 것들이 가지각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유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오류가 있습니다.

마치 SNS를 통해 전달되는 ‘감성’의 코드를 통해 획일적으로 휩쓸리는 것들을 함께 따라가고 공유하려고 애태우고 자신을 소진시키고 있는 것들 말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남들에게 드러나 유명해져야 만족을 느끼는 것들 같은 것이죠.

사실은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안달하고 있는 두려움에 쫓기는 모습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헨리 나우웬이 나누어졌던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마다 하나님 사랑의 특별한 면을 그들의 고유한 삶으로 반사한다.”**

중요한 것은 거울이 깨끗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주님의 모습을 반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주님은 나의 최고봉] 1월 23일 묵상에 ‘거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나



누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숨김없이 정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아왔다면, 그는 거울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보면 자신의 깊은 영혼 속에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 안의 거울을 더럽히는 것들을 주의하십시오. 가끔 최선의 것이 아닌 차선의 것들이 우리 영혼을 더럽힐 때가 많습니다.

\_ ‘차선’을 선택함으로 ‘최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_ 지속적인 집중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_ 그리스도인의 가장 어려운 훈련은 우리 마음의 거울 통해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는 훈련입니다.